



# 정교회 주보



##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 주일

부활절 예식 / 예식서 7~36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부활절 예식서 37~46]

•제 1, 2, 3응송 / 사도경 21~23

•사도경 : 사도행전 1:1~8 / 248 봉독서 23

•복음경 : 요한 1:1~17 / 96

사랑의 대만파 / 예식서 47~69

## 2021년 부활절 메시지

주 안에서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죽일 중의 죽일”이라는 표현의 중심이 되고, “죽제  
중의 죽제”라는 표현에 매우 깊은 의미를 지니고 포함  
되어 있는 말은 ‘부활’입니다. 즉, 이 말은 기본적으로 그  
리스도 교회의 용어입니다. 그리스도 이전이라면 이 말  
의 의미는 전혀 이해될 수 없었을 것이고, 아래오파고  
에서의 사도 바울로의 설교 때에도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이후에 이 말은 풍  
부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것만으  
로도 죽음을 이긴 영원한 승리자로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연상되어집니다. 왜냐하  
면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요한11,25)라고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온 세상  
을 두루 비추”(아쁘스띠하, 2조)는 것이고, 부활이라는  
말로 우리 마음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주님의 밝은 빛  
을 흘뿌리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우리 안에, 여

덟 번째 날, 즉 하느님 나라에 대한 달콤한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신앙의 신조에서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굳게 믿고 기다리나이다.”를 고백할 때마다 이것은 상기됩니다.

다시 반복될 수 없는 유일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가진 종말론적 관점을 지니고, 정교회에서는 교회력 일 년 동안 모든 주일에, 또 주간에 따라, ‘작은 부활’이라는 말로써 경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부활절 이후 40일간 매우 강한 표현으로 경축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그것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불멸하게끔, 또 부패와 죽음을 미워하게끔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부패와 죽음은 첫 창조의 아름다움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이제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완전

## ☞ 1면에서 계속

한 하느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신 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다시 불멸의 가능성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는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자랑하였습니다.(갈라디아6,14 참조) 그리고 성가작가도 모든 신자들이 입으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다음과 같이 자랑하도록 하였습니다: "... 당신의 부활을 자랑하나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부활은 나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전능하시고 자애로우신 주께 영광 돌리나이다."(대만과 스티히라, 7조)

부활축일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유일한 목적이 우리 개개인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이 죽음과 죄에서부터 부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 서 몸소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자들은 끊임없이 "주여, ...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이여, 죄에 추락한 우리를 일으켜주소서. ..." (애니, 4조)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

는 "고통도, 슬픔도, 근심도 없는 영원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지상에서의 삶에서 어떤 잘못을 저지른다 해도, 영원한 생명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으며, 용기를 가지고 참 생명을 얻기 위한 투쟁을 계속해나가는 것입니다.

질병, 전염병, 슬픔, 고통, 가난,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개개인의 부활이 기대됨으로써 마침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승리가 죽음을 삼켜 버렸다. 죽음아, 네 승리는 어디 갔느냐? 죽음아, 네 독침은 어디 있느냐?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1고린토 15,54-55.57)라는 말씀처럼 되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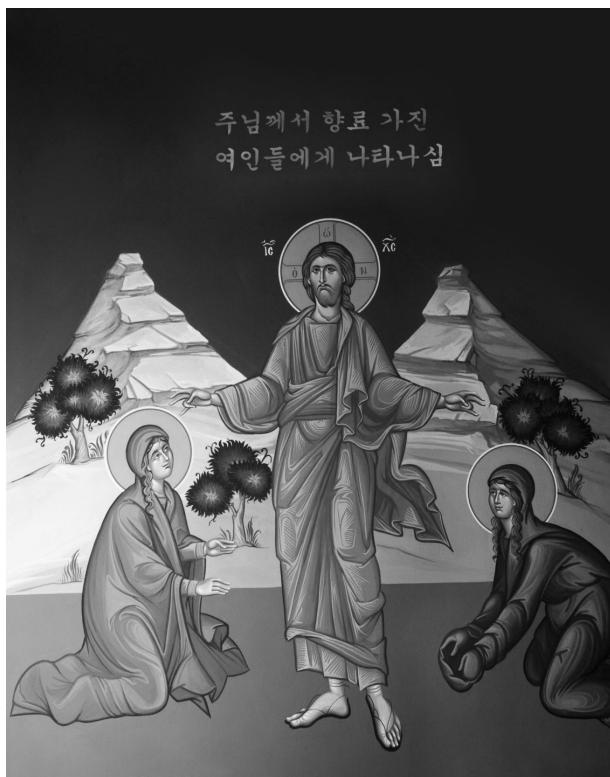
이처럼 중대한 사건 부활절을 우리 정교회에서는 큰 축일로서 밝히 드러내며 크게 경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라는 부활인사를 나눔으로써 전세계에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니 죽은 자들의 무덤이 텅 비는도다. 이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안식하신 이들의 첫 열매가 되신 까닭이로다. 주님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피시디아의 소티리오스 대주교님과 우리 성직자들과 협력자들은 여러분들 모두가 건강하고 코로나19의 위험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잘 보내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 안에서 큰 사랑과 존경을 함께

†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대주교



#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 아름다운 사람이 됩시다!

우리 주위의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인가?

그들은 맑은 시선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을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들은 품위가 있습니다.

그들은 불의와 손을 잡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혼 깊은 곳에서 웃음 짓습니다.

그들은 희생을 하고, 남에게 베풀니다.

그들은 어떤 답례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느님과 사람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순간을 즐깁니다.

그들은 친절합니다.

그들은 ‘고맙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용서합니다.

그들은 너그럽고, 후덕(厚德)합니다.

그들은 후회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정직하고, 숭고합니다...

아름다운 사람들!

여러분이 만일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들과 함께 잠시 머무르십시오. 그들이 웃게 만드는 신념과 열망을 서로 나누십시오.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작은 순간을 그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들의 관대함과 해맑은 눈을 경험하십시오.

그 순간을 만끽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타나시아

# 주보 소식

## 대교구

### ■ 이번 주간은 금식이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 후부터 40일간 매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인사하고 부활 찬양송을 부르면서 주님의 부활을 경축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금식일이 없습니다.

### ■ 부활절을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하느님의 은총으로 우리 정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것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축일인 부활절을 예년처럼 모두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경축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따르면서 성 대주간과 부활절 예배를 준비하였습니다. 부활절 달걀, 에피타피온 꽃 장식, 성당 청소 등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 세례를 축하합니다

지난 4월 24일 라자로 부활 토요일에 오랫동안 준비해온 한국 교인 미카엘라 신진아, 에프레미아 문정화, 슬라브어 사용 교인 알렉산드로스, 미국 교인 미카엘 블라이스(Blais), 필립보 쇤가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통해 정교인이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 올바른 정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축하합니다.

## 정교회 출판사

### ■ 새로운 책

지난주에 소개한 “아가 강화(雅歌講話)”는 니싸의 그레고리오스 성인께서 기술한 책입니다. 신자분들께 일독을 권합니다.



# 주간 예식



5월 3일(월) 디모데오 순교자

5월 8일(토) 요한 복음사도 신학자

오전 9시 - 축일 조과 및 성찬예배

